

여수 지구촌사랑 나눔회 필리핀 의료봉사

산페드로서 무료 진료
산부인과·소아과·검사실 등
일주일간 주민 2천여명 방문
내년 여수지구촌진료소 개원

지구촌 오지 곳곳에서 의료봉사는 물론 약품·장학금 지원 등 구호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가 있다. 여수 지구촌사랑 나눔회(회장 강병석)다.

이 단체가 이번에 찾은 곳은 필리핀 산페드로시(마닐라 라구나주) 바랑가이 지역. 인구 40만명의 산페드로시는 수도인 마닐라에 가장 인접한 '기속 도시'다. 숙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많아 가난하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빈부격차가 심한 필리핀의 특성상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진료를 얻지 못했던 빈민가 주민들은 여수 지구촌 의료봉사단을 크게 반겼다.

17번째 의료봉사에 나선 여수 지구촌 의료봉사단은 이번에도 각과별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 11명을 포함해 26명으로 봉사단을 꾸렸다. 봉사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동기간을 제외한 나흘간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진행했다.

강병석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료봉사단은 산부인과(강병석, 이은희)와 소아과(박승원), 치과(오창주), 신경외과(심병수), 내과(정대호), 진단검사의학과(문형배) 등 6개의 진료과를 구성했다. 약제실·검사실 등도 갖춰 수준 높은 종합 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문형배 교수)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명확한 진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첫날인 지난달 1일 현지 치과 의료장비 수리와 의약품 포장, 컴퓨터 셋팅 등 사전 준비를 끝낸 봉사단은 둘째 날인 2일 오전 산페드로 시청으로 향했다. 여수시가 마련한 30대의 컴퓨터와 강병석 회장의 초음파 의료장비와 영양제, 구충제 등 의약품 등을 산페드로시에 선물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0대에 이어 두 번째 기증에 나선 여수시가 사용연한 5년이 넘는 컴퓨터를 프로그램 셋팅과 포장 등의 과정을 더해 새것처럼 만들어 산페드로시에 기증했다.

이어 봉사단이 '구약'에서 본격적인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섰던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습한 현지 날씨에도 의료진과 봉사단원들은 늦은 오후까지 지친 기색 없이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몰두했다.

세계날 지구촌 봉사단이 의료봉사를 펼친 '랑갑' 지역은 개미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빈민층을 개미굴처럼 생긴 지역으로 몰아냈다는 슬픈 역사가 담겨있다.

이곳 랑갑에서 거주하는 세 아이의 엄마 제사벨 라스코(여·30)는 세계적 수준의 여수지구촌 의료봉사단의 무료진료 소식을 듣고 이날 봉사장을 찾았다가 수술을 하고 위험한 상황을 넘겼다.

의료봉사에서는 심병수 신경외과 원장(현 여수시 의사협회 회장)의 농양질환 관련 전문 외과 수술



심병수(신경외과 원장) 여수시의사회회장이 네 아이의 아버지인 제프리 리바스(32)씨 왼쪽가슴 농양 흡을 뿌리주머니까지 제거하고 있다.



여수 지구촌 의료봉사단은 필리핀 산페드로시에 컴퓨터와 초음파 의료기기, 의약품, 학용품 등을 지원했다.

도 빛을 받았다. 심 원장은 네 아이의 아빠 제프리 리바스(32)의 왼쪽 가슴부위에 20살 때부터 생겨나 어른 주먹보다 훨씬 커져있는 농양 흡을 국소 마취와 부위 절개 등 전문 외과수술로 고름 뿌리 주머니까지 완전히 제거했다.

가장 많은 환자가 찾은 소아과·내과(박승원·정대호 원장)도 정성어린 진료를 했다. 또 평소 비싼 비용 탓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몰린 오창주 모야치과 원장의 치과 진료도 가장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감동을 더했다.

실제 '싸우스빌' 지역까지 이어진 의료봉사 기간 동안 지구촌 봉사단이 진료한 주민들만 2000여명이 넘었지만 의료진은 물론 봉사단원 모두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올해 3번째인 지구촌 봉사단의 현지 의료봉사는 비영리 국제 구호단체인 '솔트 앤 라이트' 공동 대표인 이성원 목사와 그의 아내 조아라 선교사의 특별한 인연이 더해져 이뤄졌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산페드로시 빈민가인 '구약'과 '란다얀' 등지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 후원 등 사랑의 선교사역을 펼치

고 있는 이성원 목사 부부가 지난 2012년 지구촌 봉사단의 산페드로시 첫 의료봉사를 성사시킨 공로자이기 때문이다.

이성원 목사는 "한국의 다른 의료봉사단도 이곳을 찾긴 하지만 지구촌 봉사단처럼 많은 전문의들이 참여해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봉사단은 없었다"며 "급식 봉사나 컴퓨터 기증, 아이들 가방 및 학용품, 의료용품 지원 등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봉사와 배려로 큰 감동을 안겨준 봉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지구촌 사랑나눔회는 이번 의료봉사를 계기로 필리핀 산페드로시에 '여수지구촌진료소'를 개원하기로 했다. 개원은 내년 2월이 목표다.

여수지구촌진료소가 개원하면 산페드로시에서 채용한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 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의사들이 주당 2-3회 특정 요일 진료를 맡는다. 또 산페드로시 27개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구축, 현지 주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산페드로=김창화 기자 chkim@

권오봉 시장 "시민 500명 이상 청원땀 답변"

기초단체 첫 시민청원제 운영

권오봉(사진) 여수시장이 시민 500명 이상 청원하면 면담 등을 통해 직접 답변에 나선다.

여수시는 1일부터 시민이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 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맥락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처음 운영한다.

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원자가 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시민청원 창구는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개설된다.



yeosu.go.kr)에 개설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홈페이지 가입 후 생활불편 사항, 고충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된다.

시는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등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민원으로 이첩해 처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소통공약 중 하나"라며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창구가 되도록 청원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성 귀갓길 밝게 비춰 드립니다

여수시, 골목길에 '여성안심 반딧불 로고젝터' 설치

여수시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골목길 등에 '여성안심 반딧불 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로고젝터는 특수 글라스에 빛을 비춰 벽면이나 바닥에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연출하는 홍보 장치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여성의 통행이 많은 원룸 밀집지역과 골목길 등 8곳에 여성친화 문구가 담긴 로고젝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구는 '여성이 행복한 안심 여수!',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여성친화도시 여수!', '여기는 안전한길, 마음이 놓이는 길', '여성안심 귀

갓길' 등이다. 위치는 여성경찰서와 3차레 이상 회의와 현장 조사를 한 후 결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성안심 반딧불 로고젝터가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갓길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 44곳, 여성안심택배함 3곳, 여자화장실 안심벨 64곳 등 다양한 여성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안심지킴이집을 50곳 추가해 총 9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문화예술 민간 보조금 지원 참여 단체 공모

여수시 9월까지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2019년 문화예술분야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역문화 육성사업, 전통 민속 문화예술, 전시행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사업 등 10개 분야다.

여수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비영리사업자로 등록된 단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단체는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절차는 사업실적, 성과 등을 검토하

는 1차 서류심사와 지방보조금위원회의 2차 평가다.

최종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단체는 2019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 문화예술과(061-659-4736-40)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bn101010@korea.kr)로 제출도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127건의 문화예술사업에 17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